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2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이승모 · 최상훈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30%	34번	(문학 : 현대소설 & 극 융합) - 문학 개념어를 활용한 세부 일치
오답률 4위	33%	17번	(독서 : 경제) - 주요 개념 이해
오답률 3위	52%	19번	(독서 : 경제) - 지문 내용과 연결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64%	41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1위	67%	40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현대시 : 김수영, ‘사령’ / 현대소설 : 전상국, ‘동행’

[문법] 13번, 14번, 15번

[독서] 기술 지문 : 논리 회로를 이용한 컴퓨터의 정보 저장 방법 (지문 해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30%) 예측] : 문학-현대소설 & 극 융합 34번 문항

[문학 개념어를 활용한 세부 일치]	
[Killer-Point]	<p>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A]는 과거에서 현재로 장면을 전환하며 인물의 회한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A]는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고, [B]는 자연물을 의지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A]는 인물의 발화를 간접 인용하여, [B]는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상황의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⑤ [A]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B]는 기상 상황을 제시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A를 통해~ / B를 한다'라는 형태로 문학 개념어를 활용한 선지를 판단할 때는, A와 B가 맞는지, 또 A를 통해 B가 되는 것이 맞는지, 즉 A와 B 사이의 연결 관계가 맞는지 모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A]의 '밖에 눈이 펍 내렸다고, 올해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은 분명 풍년일 게라고'는 역구의 부친의 말을 간접 인용한 부분이다. 따라서 인물의 발화를 간접 인용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하지만 역구의 부친이 이러한 말을 한 시점은 동네 사람들이 역구 부자를 처치하기 전이며, 역구 부자는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을 처치하려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 인용을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고조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p> <p>마찬가지로 [B]의 '큰 키의 사내는 ~ 숨을 몰아쉬곤 했다.'는 인물의 행동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는 않다.</p> <p>틀린 학생들 중에 ①번 선지를 골라서 틀린 학생들은 장면 전환의 지점을 놓치지 않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 전환에 대한 특별한 표지 없이 장면이 전환되는 경우 놓치기 쉽다. 평소 이런 방식의 장면 전환을 많이 보고 판단하는 경험이 쌓여야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p>

[유사 평가원 기출] -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p>[앞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기로 한다.</p> <p>계연의 시뻘겍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p> <p>“오빠, 편히 사시오.”</p> <p>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p> <p>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p> <p>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p> <p>“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p> <p>“.....”</p>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쩌겠냐.”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즐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뼈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항라 적삼 :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옷도리.

*통정 :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명도 :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4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정답 : ①]

[오답률 4위(33%) 예측] : 독서-경제 17번 문항

[주요 개념 이해]	
[Killer-Point]	<p>17. 자산 유동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 기관이나 공기업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 기업도 자산 유동화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산 유동화를 시행하려는 기업은 정기적으로 현금 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을 SPC에 매각해야 한다. ③ 자산 유동화를 시행한 기업이 일시에 확보하는 현금의 주채권은 주택 저당 채권의 채무자들이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말한다. ④ 자산 유동화를 시행할 때 SPC를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유동화 증권을 구입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 자산 유동화를 시행하면 자산 유동화를 시행하지 않을 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③]</p>
	<p>기초 자산과 CDO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지문을 읽은 학생들에게는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다. 선지를 판단할 때는 무엇이든지 확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문에 돌아가서 확인을 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배어 있어야 한다.</p> <p>1문단에 제시된 자산 유동화의 정의를 보면 자산 유동화를 통해 '기업'이 일시에 확보하는 현금의 주채권은 CDO, 즉 '증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얻는 현금이다. 주택 저당 채권의 채무자들이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는 해당 증권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얻게 되는 현금이다.</p>

[유사 평가원 기출] - 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 '나 '+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가령 은행 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병과 CDS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2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 ②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
- ③ 신용 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 ④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 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정답 : ②]

2문단에서 신용 위험은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 위험이 커지고,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신용 위험이 작아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질수록 신용 위험은 작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오답률 3위(약 52%) 예측] : 독서-경제 19번 문항

[지문 내용과 연결된 <보기>의 상황 분석]

19.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CDO는 수많은 부채들의 묶음을 담보로 한 증권이므로, 각각의 부채의 신용 위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용 평가 기관은 보통 각 트랜치별로 담보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담보율이란 담보물의 가치를 투자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이해할 수 있는데, CDO의 경우에는 총 발행액이 각 트랜치의 담보물의 가치가 되고 각 트랜치의 발행액이 각 트랜치의 투자 금액이 되는데 후순위 트랜치는 선순위 트랜치(들)의 발행액까지 모두 합한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 윗글의 ㉠의 상황에서 각 트랜치의 발행액 비중과 이자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트랜치의 이자율은 신용 등급이 높게 부여될수록 더 낮게 책정된다.

	A 트랜치	B 트랜치	C 트랜치
비중	50%	30%	20%
이자율	p%	3%	q%

[Killer-Point]

- ① p가 q보다 낮은 것은 A 트랜치의 담보율이 C 트랜치의 담보율보다 높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겠군.
- ② C 트랜치의 비중을 10%로 낮추어도 C 트랜치의 CDO 구매자들이 손실을 입을 확률 자체는 변하지 않겠군.
- ③ 20억 원 규모의 부채만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A 트랜치의 CDO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지 않겠군.
- ④ A 트랜치의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면, A 트랜치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서 신용 등급이 더 낮게 부여되겠군.
- ⑤ A 트랜치의 비중은 그대로 둔 채 B와 C 트랜치의 비중을 각각 40%와 10%로 바꾸면, B 트랜치의 이자율은 3%보다 높게 책정되겠군.

[정답 : ④]

<보기>에서 '담보율'과 '신용 등급'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 지문에서 ㉠에 제시된 상황과 트랜치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보기>의 '담보율'을 놓쳤다면 순간 헛갈렸을 수 있다. (특히 2번 선지와 4번 선지 사이에서 고민했던 학생들은 '담보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읽었는지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트랜치별 신용 등급은 해당 담보율에 따라 달라진다. CDO에서 담보율은 (총 발행액/각 트랜치의 발행액)의 비율이 되는데, 후순위 트랜치는 선순위 트랜치들의 발행액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 해당 트랜치의 발행액, 즉 '분모'가 된다. 후순위 트랜치로 갈수록 분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분자(총 발행액)는 ㉠에서 '100억'으로 고정해주었으니, 담보율이 A(100/50)→B(100/80)→C(100/100) 순서로 작아지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과 반비례하므로, 신용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신용 위험이 커진다는 것과 같다.

여기까지 정리했다면, 선지의 상황을 하나씩 적용해보면 된다. 먼저 4번 선지의 상황은 A 트랜치의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경우이다.

<보기>에 제시된 표에 따르면 A트랜치는 총 발행액(100억)의 50%(50억), B트랜치는 30%(30억), C트랜치는 20%(20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A트랜치의 담보율은 $(100/50)=200\%$ 가 된다.
 이제 A트랜치의 비중을 현재보다 10% 낮춘 40%로 가정하고 담보율을 계산해보자. A트랜치의 비중이 40%가 되면, A 트랜치의 담보율은 $(100/40)=250\%$ 가 된다. <보기>의 정보에 따르면 담보율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신용 등급이 부여되므로, A트랜치의 비중이 낮아지면 A트랜치에는 더 높은 신용 등급이 부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2번 선지에 대한 판단도 같은 맥락 안에서 가능하다. 다만 2번 선지의 대상은 C트랜치이므로, 후순위 트랜치는 선순위 트랜치들의 발행액을 모두 합한 값이 분모가 된다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현재 C트랜치의 담보율은 100억을 100억으로 나눈 값, 즉 100%이다. 그런데 C트랜치의 비중을 10%로 낮추더라도, 어차피 C트랜치의 분모는 선순위 트랜치(A, B)의 발행액까지 모두 합한 값이므로 늘 100억일 수밖에 없고, 담보율은 항상 100%(100/100)가 된다.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담보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신용 등급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신용 위험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즉 C트랜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확률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17학년도 수능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39.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정답 : ⑤]

<보기>에서 공동체 B의 사고 발생 확률은 공동체 A의 사고 발생 확률보다 두 배 높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이 적용된다면 B의 보험료는 A의 보험료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같다면 A에서의 보험금은 B보다 두 배 많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결국 B에서 사고 발생 확률은 A의 두 배이지만 보험금은 A가 B보다 두 배 많으므로 A와 B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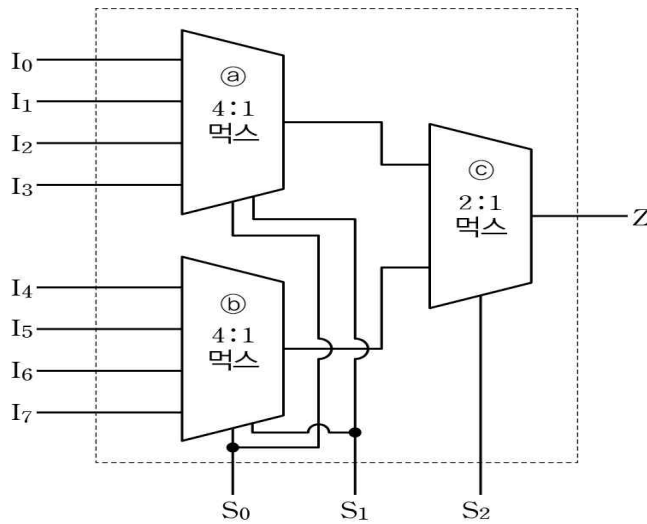
[오답률 2위(약 64%) 예측] : 독서-기술 41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1.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아래의 논리 회로는 2 : 1 믹스와 4 : 1 믹스를 조합한 8 : 1 믹스로, 세 자리의 제어 신호 S_0, S_1, S_2 를 이용해 $I_0 \sim I_7$ 의 일곱 개의 입력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단, 아래의 회로에서 2 : 1 믹스는 모두 <그림 1>의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4 : 1 믹스는 모두 <그림 2>의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Killer-Point]

- ① ㉓의 출력값은 S_2 가 1일 때에만 Z 로 나갈 수 있다.
- ② $I_4 \sim I_7$ 이 모두 0이면 ㉔는 S_0, S_1 과 관계없이 0을 출력한다.
- ③ S_0, S_1, S_2 가 101일 때, ㉕는 I_4 와 I_5 를 입력받아 I_5 를 출력한다.
- ④ S_0, S_1 이 11일 때, ㉓에서는 I_3 이 출력되고 ㉔에서는 I_7 이 출력된다.
- ⑤ ㉓가 I_1 을 출력한다면, ㉕가 I_6 을 출력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①]

1번 선지부터 한 번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일수록 출제자가 그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사고를 전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㉓, ㉔, ㉕는 '게이트'가 아니라 '믹스'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믹스', '2:1 믹스'에서 S값과 출력값의 관계는 이미 지문에서 제시해 주었고, 그래서 선지에서 S값에 따라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지문에 있는 S값과 출력값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1 믹스(㉕)	4:1 믹스(㉓, ㉔)
$S=0 \rightarrow$ 출력값= I_0	$S_0, S_1=0,0 \rightarrow$ 출력값= I_0
$S=1 \rightarrow$ 출력값= I_1	$S_0, S_1=0,1 \rightarrow$ 출력값= I_2
	$S_0, S_1=1,0 \rightarrow$ 출력값= I_1
	$S_0, S_1=1,1 \rightarrow$ 출력값= I_3

<보기>의 '8:1 믹스'는 총 3개의 S값을 가지는데, S₀, S₁는 ㉠, ㉡의 출력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S₂는 ㉢의 출력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제 1번 선지의 상황을 한 번 대입해보자.
 S₂가 1일 때는, ㉢:2:1 믹스'에서 I₁, 즉 아래에 있는 '4:1 믹스'인 ㉠의 출력값을 Z로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S₂가 1일 때는 ㉠의 출력값이 Z로 나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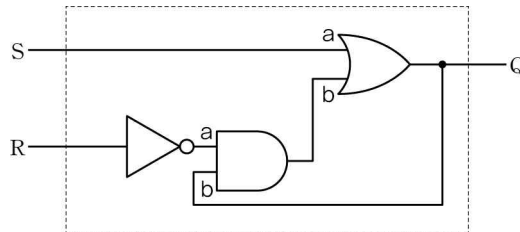
[오답률 1위(약 67%) 예측] : 독서-기술 40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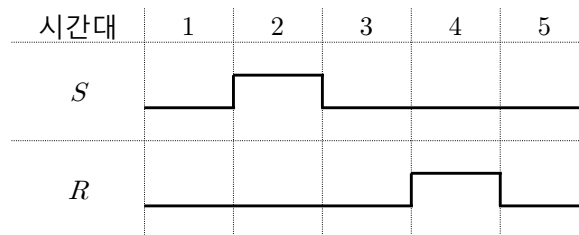
4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아래는 입력 단자 S, R과 출력 단자 Q를 가진 '플립플롭'이라는 논리 회로로, '되먹임'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즉 현재의 출력값이 다음 시간대에서 AND 게이트의 b에 입력 되도록 되어 있어, 두 입력 단자 S, R에 1V의 전압이 인가된 동안에는 출력값이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다. 이 회로에 0대신 1을 저장하려면 S에만 4V의 전압을 인가하고, 1대신 0을 저장하려면 R에만 4V의 전압을 인가하면 된다.



공학자 갑은 위 논리 회로의 입력 단자 S, R에서 아래와 같은 전압 패턴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단, 초기 상태의 출력값은 0이고, 하나의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각 게이트의 연산 과정에서 시간 지연은 발생하지 않는다.)



[Killer-Point]

- ① 1의 시간대에서 S, R, Q에 인가되는 전압은 모두 1V이겠군.
- ② 2의 시간대에서 저장된 정보는 3의 시간대에서 다른 정보로 바뀌겠군.
- ③ 1의 시간대에서 출력되는 값은 5의 시간대에서 출력되는 값과 동일하겠군.
- ④ 2의 시간대와 4의 시간대에서는 각각 그 전 시간대와 출력값이 다르겠군.
- ⑤ 초기 상태의 출력값이 1로 정해졌다면, 1의 시간대에서 출력되는 값은 1이겠군.

[정답 : ②]

첫 번째 회로 그림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더 헛갈린다. 이 회로 그림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보기>에서 직접 정리해 주었으니, 그림에 현혹되지 말고 제시된 정보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1. S, R에 1V의 전압이 인가되면 출력값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2. S에 4V의 전압을 인가하면 출력값이 1이 되고, R에 4V의 전압을 인가하면 출력값이 0이 된다. 특히 이 두 가지는 특정한 입력값과 출력값을 정해주는 정보들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다. 여기에 지문에서 '통상 0의 값은 0V에서 2V 사이의 낮은 전압으로, 1의 값은 3V에서 5V 사이의 높은 전압으로 구현'된다고 하였으니, 1V일 때는 0, 4V일 때는 1의 입력값, 혹은 출력값을 가질 것이라는 것 정도만 떠올릴 수 있으면 정답은 고를 수 있다.

2의 시간대를 보면 S에는 4V의 전압이 인가되었고, R에는 1V의 전압이 인가되었다. <보기>에 따르면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간 경우 출력값은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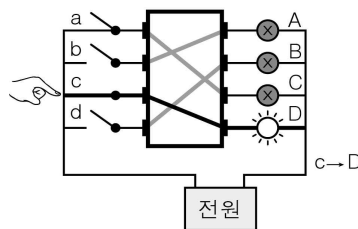
그리고 3의 시간대를 보면 두 단자 모두에 1V의 전압이 인가되었다. <보기>에 따르면 두 단자 모두에 1V의 전압이 인가되면 출력값이 계속 유지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2의 시간대에 출력된 출력값 1은 3의 시간대에도 유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3번 선지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선지를 판단하면 4번 선지도 함께 판단이 가능하다. 1의 시간대에서는 S와 R에 모두 1V, 즉 0의 입력값이 입력된다. 이 경우에는 초기 상태의 출력값 0이 유지될 것이므로 1의 시간대에 출력값은 0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2, 3번 시간대의 출력값은 모두 1인데, 4번 시간대에서 S에 1V, R에 4V가 인가되면서 출력값이 0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출력값은 다시 5에서 유지된다. 따라서 1~5시간대의 출력값을 순서대로 쓰면 0, 1, 1, 0, 0이 된다.

[유사 교육청 문제] - 2012년도 3월 학력평가

암호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전치(轉置) 방식과 환자(換字) 방식이 있다. 전치 방식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평문의 철자 위치를 바꾸어 암호문을 만드는 방식이고, 환자 방식은 평문 철자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다른 문자로 바꾸어 암호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더 복잡하게 하고자 할 때는 전치 방식과 환자 방식을 함께 적용한 혼합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암호화의 규칙을 '알고리즘(algorithm)'이라 하고 역으로 암호문을 평문으로 푸는 해독의 규칙을 '키(key)'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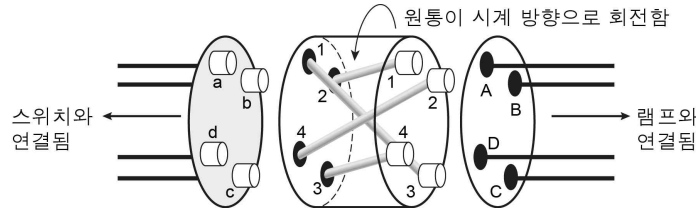
암호의 원리는 현대 문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암호 장치들로 구현되었다. 특히 전신(電信)에 의한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기 암호 장치가 개발되었다.



[그림 1] 전기 암호 장치의 구조

[그림 1]에서 스위치 a, b, c, d와 연결된 램프 A, B, C, D로 구성된 이 장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키보드에서 평문 철자를 입력했을 때 불이 켜지는 램프가 암호 철자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처럼 송신자가 평문 철자 c를 입력했을 때 c에 연결된 램프 D가 켜지고 이 암호 철자 D를 전신으로 받은 수신자는 암호 철자인 D를 눌러 D에 연결된 원래의 평문 철자 c를 얻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기 암호 장치는 회로 구조가 파악되면 쉽게 암호가 노출될 수 있고, 그런 경우 다시 회로 구조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시(戰時)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회전하는 원통 속에 전기 회로를 넣은 '에니그마'가 개발되었다.



[그림 2] 에니그마의 구조

에니그마는 원통이 회전함에 따라 스위치와 램프의 연결 상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회로 구조를 조작하지 않고도 평문 철자와 암호 철자의 대응 규칙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원통이 회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문 'b'를 입력하면 [그림2]의 회로 구조를 거쳐 암호문 'A'로 나타나지만(b-2-1-A), 원통이 시계 방향으로 1/4바퀴 돌아간 경우에는 같은 'b'를 입력하더라도 원통 속의 회로가 다른 단자와 연결되면서 암호문 'C'로 나타나게 된다(b-3-4-C). 따라서 암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통 바퀴 내부의 회로 구조뿐만 아니라 한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원통이 언제, 얼마나 회전하는지 등 원통의 회전 규칙도 함께 알아야 한다.

21.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암호 철자'는?

< 보 기 >

[그림 2]의 에니그마로 암호를 보내고자 한다. 에니그마에 첫 번째 평문 철자를 입력할 때는 원통이 고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평문 철자를 입력할 때마다 원통이 반시계 방향으로 1/4만큼 회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자. 평문 철자 'bc'를 입력했을 때 나올 암호 철자는 ()이다.

- ① AB ② AC ③ BC ④ DA ⑤ DB

[정답 : ①]

[그림 2]에 처음에는 원통이 회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따라서 최초 입력값 'b'를 입력하면 출력값 'A'가 나온다. 그리고 다음 입력값 'c'를 입력하면 원통이 반시계 방향으로 1/4만큼 회전한 상태이므로 출력값으로 'B'가 나오게 된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 규칙 활용 : 용언 활용 시,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변하더라도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 가능한 것

변화 없음	가다, 가고, 가지, 가게, 가라, 가서, 갈, 간 등	
변화 있음	‘ㄹ’ 탈락	쓰- + -어 → 써 끄- + -어 → 꺼
	‘ㄴ’ 탈락	살- + -으니 → 사니 울- + -는 → 우는 날- + -니 → 나니?

· 불규칙 활용 : 용언 활용 시,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고, 그를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①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규칙 활용의 예
‘ㅅ’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함	짓- + -어 → 지어	벗- + -어 → 벗어
‘ㄷ’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뀜	건- + -어 → 걸어	달- + -아 → 달아
‘ㅃ’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ㅃ’이 ‘오/우’로 바뀜	돕- + -아 → 도와	잡- + -아 → 잡아
‘ㄹ’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ㄹ’이 ‘ㄹㄹ’로 바뀜	흐르- + -어 → 흘러	따르- + -아 → 따라
‘우’ 불규칙	모음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함	푸- + -어 → 퍼	주- + -어 → 주어

②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규칙 활용의 예
‘여’ 불규칙	어간 ‘하’ 뒤에서 어미 ‘아/어’가 ‘여’로 바뀜	합격하- + -어 → 합격하여	파- + -아 → 파
‘러’ 불규칙	어간 ‘르’ 뒤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뀜	푸르- + -어 → 푸르러	치르- + -어 → 치러
‘너라’ 불규칙	명령형 어미 ‘아/어라’가 ‘너라’로 바뀜	오- + -거라 → 오너라	먹- + -거라 → 먹거라
‘오’ 불규칙	‘달/다-’의 명령형 어미가 ‘오’로 바뀜	달/다- + -아라 → 다오	주- + 어라 → 주어라

③ 어간과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종류	내용	불규칙 활용의 예	규칙 활용의 예
‘ㅎ’ 불규칙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어’가 오면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바뀜	파랳- + -아서 → 파래서	좋- + -아서 → 좋아서

[선택지 해설]

13. ③

정답해설 답은 ③이야. 먼저, ①의 ‘흘렀다’를 분석하면 ‘흐르- + -었- + -다’가 돼. ‘흘렀다’는 기본형인 ‘흐르다’의 어간인 ‘흐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은 경우야. 자, 이 ‘흐르었다’가 ‘흘렀다’가 되려면 어간 ‘흐르-’의 ‘르’가 ‘ㄹ’ 형태로 바뀌어야 해. 그래서 ‘ㄹ’ 하나는 ‘ㅎ’ 뒤에 붙어서 ‘홀’이 되고 ‘ㄹ’ 하나는 어미 ‘-었-’으로 가서 ‘렸’이 되는 거야. 즉, ①의 ‘흘렀다’는 어간 불규칙 활용인 ‘르’ 불규칙으로 ㉠에 해당 해. 다음으로, ②를 보자. ②의 ‘푸르려’를 분석하면 ‘푸르- + -어’야. 기본형의 어간인 ‘푸르-’에 어미 ‘-어’가 붙은 거지. 자, 이 경우 뭐가 바뀌어? 맞아. 어간 ‘푸르-’는 그대로고 어미 ‘-어’가 ‘-려’로 바뀌어. 그럼 이건 어미 불규칙 활용인 ‘려’ 불규칙에 해당해. 즉, ②의 ‘푸르려’는 ㉡에 해당하는 게 아니야.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먼저, ③의 ‘나았다’의 기본형은 ‘나다’야. 이에, ‘나았다’는 분석하면 ‘나- + -았- + -다’가 돼. 즉, 어간 ‘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았-’이 와서 ‘사’이 탈락했어. 즉, 어간 말음 ‘사’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했고, 이는 ㉠에 해당해. 다음으로, ④의 ‘지어’의 기본형은 ‘짓다’야. 이에 ‘지어’를 분석하면 ‘짓- + -어’가 돼. 즉 어간 ‘짓-’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와서 ‘사’이 탈락했어. 즉, 어간 말음 ‘사’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했고, 이는 ㉠에 해당해.

②를 살펴보자. 먼저, ④의 ‘깨달았다’의 기본형은 ‘깨닫다’야. 이에 ‘깨달았다’는 분석하면 ‘깨달- + -았- + -다’가 돼. 즉, 어간 ‘깨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았-’이 와서 어간의 ‘ㄷ’이 ‘ㄹ’로 바뀌었어. 즉, 어간 말음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뀐 거고, 이는 ㉡에 해당해.

④를 살펴보자. ⑥의 ‘위하여’의 기본형은 ‘위하다’야. 이에, ‘위하여’를 분석하면 ‘위하- + -아’가 돼. 즉, 어간 ‘위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가 왔고, 어미 ‘-아’가 ‘-여’로 바뀌었어. 즉, ‘하-’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모음 어미 ‘-아’가 ‘-여’로 바뀐 것으로 ㉡에 해당해.

⑤를 살펴보자. ⑤의 ‘커다래졌다’의 기본형은 ‘커다랗다’야. 이에, ‘커다래졌다’를 분석하면 ‘커다랗- + -아지- + -었- + -다’야. 즉, ‘ㅎ’으로 끝나는 어간 ‘커다랗-’ 뒤에 모음 어미가 와서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바뀐 경우로 ㉡에 해당 해. 참고로, 어미가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어떻게 봐도 어미가 바뀌긴 했으니 ‘ㅎ’ 불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하게 바뀐 경우로 봐.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0)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음운 개수가 하나 늘다.(+1)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음운 개수가 하나 준다.(-1)

1. 음절 끝소리 규칙 :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외의 자음이 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어말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받음.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 : 음절 끝소리가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뀌고 연음.

받침	대표음	예시
ㄱ, ㅋ, ㆁ	ㄱ	국[국], 밖[박], 부엌[부억]
ㄴ	ㄴ	소원[소원]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ㄷ	날, 날, 낫, 낫, 낫, 낫, 날 → [날]
ㄹ	ㄹ	말[말], 발[발]
ㅁ	ㅁ	감[감]
ㅂ, ㅍ	ㅂ	입, 앞 → [입]
ㅇ	ㅇ	강[강]

2.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뚫는 → [뚫는 → 뚫른]

3. 비음화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ㄹ 앞	[ㅇ]	국물[궁물], 낚는다[낙는다→냥는다], 부엌문[부억문→부영문]
ㄷ	ㄴ, ㄹ 앞	[ㄴ]	닫는[단는], 걸모양[겉모양→건모양], 쫓는[쫓는→쫓는]
ㅂ	ㄴ, ㄹ 앞	[ㅁ]	밥물[밤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참고] 결국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면 좋다.

유음화, 비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다.

4. 구개음화 : 받침 'ㄷ, ㅌ(ㄷ)'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동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으로, 어떤 음이 인접해 있는 음과 같거나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모음 'ㅣ'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구개음(경구개음)인데, 'ㅣ'와 거리가 먼 'ㄷ, ㅌ'이 'ㅣ'와 거리가 가까운 'ㅈ, ㅊ'으로 발음되어 'ㅣ'와 조음 위치가 비슷하게 바뀐 것이므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현상이다.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ㄷ, 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ㅈ, ㅊ]	굳이 → [구지], 밭이 → [바치],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

[참고 1] 구개음화는 ① 교체 / ② 동화 / ③ 조음 방법, 조음 위치가 둘 다 바뀌는 것이다.

[참고 2] 구개음화는 ① 통시적 변화 ② 자음 축약과의 비교(달히다[다치다] vs 꽃히다[꼬치다])까지 알아두면 좋다.

5. 된소리되기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ㄷ, ㅂ, ㅅ, ㅈ → [ㄲ, ㄸ, ㅃ, ㅆ, ㅉ] / ①, ②, ③

① ㄱ, ㄷ, ㅂ 뒤

예) 국밥 → [국뽕], 꽃병 → [꼇병], 값도 → [갑또]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ㄹ 뒤

예) (동생을) 안고 → [안꼬], (신발을) 신고 → [신꼬], (의자에) 앉고 → [안꼬]

-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ㄹ'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체언의 끝 자음 'ㄴ, ㄹ'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고]

- 피동, 사동 접사 '-가-'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기대]: 안 + -가 + -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을 → [할꺼술], 갈 데가 → [갈떼가], 만날 사람 → [만날싸람]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④ ㄷ, ㅅ, ㅈ → [ㄸ, ㅆ, ㅉ]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쌀], 열정 → [열똥]

-----교체

6.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겹받침)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 우리말에서 음절 말 위치에 놓이는 자음은 하나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될 경우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된다. 예) 앉으면 → [안즈면]

[주의] 쌍자음 'ㄲ, ㅆ'은 겹받침이 아니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다.(음절 끝소리 규칙이다.)

겹받침	환경	결과	예시
체언의 겹받침 ㄱ, ㄷ, ㅂ, ㄷ, ㄹ	어말 또는 자음 앞	[ㄱ, ㄷ, ㅂ, ㄱ, ㄹ]	넋 → [넛], 여덟 → [여똥], 값 → [갑], 닭 → [닥], 삶 → [삼]
어간의 겹받침 ㄴ, ㄹ, ㄷ, ㄹ, ㅂ, ㄷ, ㄹ	자음 앞	[ㄴ, ㄹ, ㄷ, ㄷ, ㄹ, ㅂ, ㄷ]	안고 → [안꼬], 많네 → [만:네], 활고 → [할꼬], 앓는 → [알른], 없고 → [업:꼬], 굶다 → [굸:따], 읊다 → [읍:따] 단, 'ㄷ, ㄹ'의 'ㅎ'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축약되기도 한다. 예) 많다 → [만타]

[참고] 특이한 겹받침 발음(알아두자)

- 어간의 겹받침 ㄹ → [ㄹ] / ㄱ 앞 예) 잃고 → [일꼬], 맑게 → [말께]

ㄹ → [ㄱ] / ㄱ 이외의 자음 앞 예) 잃다 → [익따], 맑다 → [막따]

- 어간의 겹받침 ㅃ → [ㄷ] / 자음 앞 예) 넓고 → [널꼬], 짧게 → [잘께]

ㅃ → [ㅃ] (뵈-/ 자음 앞, 넓죽하다, 넓둥글다)

예) 뵈고 → [뵈꼬], 넓죽하다 → [넙쭈카다], 넓둥글다 → [넙똥글다]

⇒ 'ㅃ'은 주로 'ㄷ'이 남으나, 자음 앞에 나타난 '뵈-'과,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ㅃ'은 'ㅃ'이 남는다.

-----탈락

7.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코], 앉던 → [안턴], 싫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나카산], 말형 → [마텅], 값 흥경 → [가퐁경]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축약

8. ‘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 : 벼련]

∅ → [ㄴ] / 받침 자음 + ㅣ 또는 반모음 ‘ㅣ’ 예) 맨 + 입 → [맨닙], 색 + 연필 → [생년필]

[주의] ‘ㄴ’ 첨가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특히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단어의 경우에는 ‘ㄴ’의 형태가 발음에 보이지 않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발야구[발라구]의 경우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지만 발음에는 ‘ㄴ’ 밖에 보이지 않는다. ‘ㄴ’ 첨가 후 유음화되는 현상은 꼭 기억하자.

[선택지 해설]

14. ①

훅일	훅일 → 자음군 단순화	훅일 → ㄴ 첨가	훅닐 → 비음화	훅닐
닿는	닿는 → 자음군 단순화	닿는 → 유음화	달른	
날날이	날날이 → 구개음화	날나치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날나치 → 비음화	난나치
문히다	문히다 → 거센소리되기	무티다 → 구개음화	무치다	

정답해설 답은 ①이야. 자, 먼저 ‘벼+훅일’에서는 ‘훅’의 종성인 ‘ㅌ’와 모음 ‘ㅣ’가 만나서 ‘ㅌ’가 ‘ㄷ’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벼훅치]가 돼. 그런데 ①인 ‘훅일’에서는 먼저 종성의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훅일’이 되고, 그 후 ‘ㄴ’첨가가 일어나 ‘훅닐’이 되고 마지막으로 ‘비음화’가 일어나 ‘훅닐’이 돼. 다음으로, ①인 ‘닿는’에서도 먼저 종성의 겹받침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닿는’이 되고, 그 후 ‘유음화’가 일어나 ‘달른’이 돼. 정리하면 ①과 ①에서는 종성의 겹받침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인 ‘자음군 단순화’가 있어. 하지만, ‘벼+훅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오답풀이]

②를 살펴보자. 먼저, ‘늦+여름’에서는 어간의 종성 ‘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인 ‘여름’의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어서 ‘늘여름’이 되고, ‘ㄴ’첨가가 일어나 ‘늘녀름’이 된 후, 비음화를 겪어 ‘늘녀름’이 돼. ①인 ‘훅일’에서는 먼저 종성의 겹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서 ‘훅일’이 되고, 그 후 ‘ㄴ’첨가가 일어나 ‘훅닐’이 되고 마지막으로 ‘비음화’가 일어나 ‘훅닐’이 돼. 자, 둘 다 ‘ㄴ’첨가가 일어나. 즉, 새로운 음운인 ‘ㄴ’이 첨가된 음운 변동이 있어.

③을 살펴보자. 먼저, ‘먹+니’에서는 어간 종성 ‘ㄱ’과 어미 ‘-니’의 ‘ㄴ’이 만나서 ‘ㄱ’이 ‘ㅇ’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즉, 여린입천장 소리가 파열음인 ‘ㄱ’이 윗잇몸소리이자 비음인 ‘ㄴ’을 만나서 여린입천장소리이자 비음인 ‘ㅇ’으로 바뀌는 거야. 즉, ‘ㄱ’이 ‘ㅇ’으로 바뀌는데 조음 위치가 바뀔까 조음 방법이 바뀔까? 맞아, ‘ㄱ’에서 ‘ㅇ’이 될 때 조음 위치인 ‘여린입천장소리’는 동일하지만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어. 이때,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는 이유는 ‘ㄱ’이 만나는 자음인 ‘ㄴ’이 비음이라서야. 즉, ‘먹+니’가 [멍니]로 발음되는 것에는 한 음운이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조음 방법이 같아진 ‘비음화’가 있어. 자, 그럼 ②과 ③을 보자. 먼저, ②의 경우 ‘닿는’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닿는’이 되고, 그 후 ‘ㄹ’과 ‘ㄴ’이 만나 ‘ㄴ’이 ‘ㄹ’이 되는 ‘유음화’가

일어나. 이는 윗잇몸소리이자 유음인 ‘ㄹ’과 윗잇몸소리이자 비음인 ‘ㄴ’이 만나 ‘ㄴ’이 ‘ㄹ’로 변하는 거야. 즉, ‘ㄴ’이 ‘ㄹ’로 변하는 것은 조음 위치는 같고, 조음 방법이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는 것이야. 다음으로, ㉠의 경우 ‘날날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날나치’가 되고, 그 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어 ‘날나치’가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난나치’가 돼. 결국, ㉠, ㉡ 모두 한 음운이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어.

④를 살펴보자. 먼저, ‘불+인’이 [부친]으로 발음되는 현상에서는 종성 ‘ㅌ’이 모음 ‘이’를 만나 ‘ㅈ’이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자, ‘구개음화’는 자음이 ‘ㄷ, ㅌ’가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ㅈ, ㅊ’가 되는 것으로,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 교체된 음운 변동이야. 자, 그럼 ㉢과 ㉣을 살펴보자. 먼저, ㉢의 경우 ‘날날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날나치’가 되고, 그 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어 ‘날나치’가 된 후 ‘비음화’가 일어나 ‘난나치’가 돼. 다음으로, ㉣의 경우 ‘물히다’에서 ‘ㄷ’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ㅌ’와 ‘ㅣ’가 만나 ‘ㅊ’가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즉, ㉢과 ㉣에서도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 교체된 음운 변동인 ‘구개음화’가 일어나.

⑥를 살펴보자. 먼저, ‘밥+하고’가 [바파고]로 발음되는 현상에서는 ‘ㅂ’과 ‘ㅎ’이 만나 축약되어 ‘ㅍ’가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그리고, ㉤의 경우 ‘물히다’에서 ‘ㄷ’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인 ‘ㅌ’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ㅌ’와 ‘ㅣ’가 만나 ‘ㅊ’가 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즉, ‘밥+하고’가 [바파고]가 되는 경우와 ㉤ 모두에서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일어나.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안긴 문장(절) / 안은 문장]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기 전)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ㄴ’	나는 <u>승모</u> 가 모범생임을 안다. 우리 <u>등반대</u> 가 <u>에베레스트 산</u> 에 <u>올랐음</u> 이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u>우리는 승모</u> 가 <u>성공하기</u> 를 기대했다. <u>에베레스트 산</u> 에 <u>오르</u> 기가 너무 어렵다.

(2) 부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u>입이 마르게</u>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태현이는 <u>다리가 붓도록</u>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나는 <u>영지가 잡아서</u>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u>달이 구름에 가듯이</u> 간다.
⑤ 부사형 어미 ‘-수록’	<u>해가 갈수록</u> 경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u>말도 없이</u> 갔다.

(3)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형절은 전성 어미로 찾고 / 안긴문장의 생략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 그 성분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인지 찾는 게 전부이다.(매우 중요)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 학교에 가는 철수를 보았다. →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철수가 쓴 글을 읽었다. →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 →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 나는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 →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

(4)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절 표시가 없음.)

㉢ 코끼리가 코가 길다.(서술절) / 서울은 인구가 많다.(서술절)

[참고] 서술절은 보어가 있는 홀문장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 이승모는 돼지가 아니다.(‘돼지가’는 보어, 홀문장)

(5)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화자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옮긴 문장

표지	예
① 직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라고', '하고'	나는 "날씨가 너무 더워!"라고 소리쳤다. 폭풍으로 나무가 "쿵!"하고 쓰러졌다.
② 간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고'	선생님이 나에게 저 가방에는 무엇이 있냐고 물었다. 철수가 영희에게 숙제를 보여달라고 했다.

[참고] 인용절은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혹은 간접 인용에서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의 변화를 묻는다. 이것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보기>에 나타나는 대로 확인만 하면 된다.

[선택지 해설]

15. ㉠

㉠	그는 [연락도 없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 부사절
㉡	나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동생을 불렀다. 관형절(주어 생략)
㉢	우리는 [이 책을 쓴] 작가의 출판 기념회에 갔다. 관형절(주어 생략)
㉣	[어제 우리가 배추를 산] 시장은 집 근처에 있다. 관형절(부사어 생략)

정답해설 답은 ㉠야. 먼저, ㉠에서 안긴문장은 ‘연락도 없이’야. 이는 ‘연락도 없다’라는 문장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절’이 된 거야. 이렇게 부사절이 된 ‘연락도 없이’는 뒤에 오는 용언어자 서술어인 ‘늦었다’를 꾸미고 있어. 자, 그런데 ‘연락도 없다’는 주어인 ‘연락도’와 서술어인 ‘없다’로 구성되어 있어. 이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을까? 없어. ‘연락도 없다’는 온전한 문장으로 더 필요한 문장성분이 없잖아. 즉, ㉠에는 ‘부사절’이 들어가야 해.

다음으로, ㉡에서 안긴문장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이야. 이는 ‘(동생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붙어 ‘관형절’이 된 거야. 이렇게 관형절이 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은 뒤에 오는 체언인 ‘동생’을 꾸며주고 있지. 이때,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은 본래 ‘동생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동생’이 생략된 거야. 즉, ㉡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사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자, ㉢에서 안긴문장은 ‘이 책을 쓴’이야. 이는 본래 ‘(작가가) 이 책을 쓰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이 붙어 ‘관형절’이 된 거야. 이렇게 관형절이 된 ‘이 책을 쓴’은 뒤에 오는 체언인 ‘작가’를 꾸며주고 있지. 이때, ‘이 책을 쓴’은 본래 ‘작가가 이 책을 쓰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작가’가 생략된 거야. 즉, ㉢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관형사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즉, ㉣에는 ‘주어’가 들어가야 해.

마지막으로, ㉤에서 안긴문장은 ‘어제 우리가 배추를 산’이야. 이는 ‘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를 사다(اشت다)’라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이 붙어 ‘관형절’이 된 거야. 이렇게 관형절이 된 ‘어제 우리가 배추를 산’은 뒤에 오는 체언인 ‘시장’을 꾸며주고 있지. 이때, ‘어제 우리가 배추를 산’은 본래 ‘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배추를 샀다’라는 문장에서 안은문장과 같은 부분인 ‘시장’이 생략된 거야. 이때, 생략된 ‘시장에서’는 체언인 ‘시장’ 뒤에 부사격조사인 ‘에서’가 붙은 ‘부사어’야. 즉, ㉤에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관형사절로 안긴문장이 있어. 즉, ㉤에는 ‘부사어이다’가 들어가야 해.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소설 [32~36번 지문] [전상국, '동행(同行)']

“난 기억 못할 줄이야 만 겁다. 기 왜, 사별 때 말입니다. 파르세끼 죽듯 사람 막 죽일 때 말이지. 놈을 죽일 때 보니 그놈 왼손에 장미를 끼고 있더라.”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165p), 사용 설명서(p162)

[작품 '한 눈에 보기']

[작품 전체 줄거리]

서로의 신분을 모르는 두 사람이 눈 덮인 밤에 산길을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강원도 산골에 와야리 라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었다. 둘은 동행하면서 서로 어린 시절의 일을 털어놓는다. 먼저 큰 키의 사내는 토끼 사냥 때 잡았던 새끼 토끼를 풀어 주려고 했으나 그의 도덕적 규범 때문에 생물 선생님의 얄은 담을 넘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던 이야기를 했다. 억구는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득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억구는 자신을 괴롭히던 득수의 손을 물어 뜯어 살점이 드러나게 했고 그 별로 광 속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후에 천더기(천대 받는 인물)라고 따돌림을 당하게 된 억구는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가 되어 득수를 죽이는 등 마을에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 국군이 들어오자 득수의 동생 득철은 보복으로 억구의 부친을 죽인다. 득구는 보복의 현장에 아버지를 남겨둔 채 마을을 떠났지만 자신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된 아버지를 남겨두고 온 기억으로 강한 죄의식을 갖게 됐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이곳, 와야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살아왔다. **[한수 출제 부분]** 억구는 부친의 무덤이 있는 곳이 가까워 오자 큰 키의 사내에게 득철을 죽인 사람이 자신임을 실토한다. **[EBS 출제 부분]** 사실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온 큰 키의 사내는 어린 시절 새끼 토끼를 구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억구에게 연민을 느끼고, 억구에게 담배를 건네며 보내 준다.

[배경 구성과 단계의 관계] (in 사용설명서)

- 이 작품의 주된 배경인 구름치 고개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름치 고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서로의 신분을 감춘 두 사내가 눈 덮인 산길을 동행하고 있음.	'큰 키의 사내'가 학창시절 토끼 사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줌.	억구가 자신의 비참했던 어린 시절과 전쟁 중에 아버지가 살해당한 이야기를 들려줌	억구가 '큰 키의 사내'에게 자신이 살인자임을 고백함. [수록]	억구에게 연민을 느낀 '큰 키의 사내'는 억구를 놓아줌. [수록]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를 보면 분명히 '전행'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보득술밭을 지나 꽤 큼직한 송림 사잇길이었다. 소나무 위에 앉았던 눈이 싹싹 떨어져 내렸다. 역구가 다시 이야길 이어 갔다.

"난 기어코 득술 죽이고야 만 겁니다. 거 왜, 사변 때 말입니다. 파리새끼 죽이듯 사람 막 죽일 때 말이죠. 놈을 죽일 때 보니 그놈은 왼손에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차마 그걸 벗겨 버릴 순 없었는데— 울화통은 더 치밀더군요. 여하튼 난 득술 죽이고야 말았다 이겁니다. 허나 그뿐인 줄 아슈? 육친을, 즉 제 애비까지 잡아먹은 게 바로 나요. 이 최역구라는 인간입네다."

결국 이용당했더라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동네의 천더기로 따돌림 당하던 자기를 빨갱이들이 용하게 이용했더라는 것이다.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이니 하는 감투를 떠억 씌워서. 그래 결국 자기 부친까지 참사를 당하게 하고 만 것이었다.

늙은 부친과 함께 한 방에서 자고 있었다. 계모는 이미 역구가 철들기 시작할 무렵 달아나 버렸고, 그래 부친은 늘 역구에게 장가가길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와야리에선 힘든 일일 수밖에.

역구는 눈을 멀뚱히 뜬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금 전 소변보러 밖에 나갔던 부친이** 돌아오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밖에 눈이 펄 내렸다고, 올해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은 분명 풍년일 게라고— 하던 부친이 이불을 뒤집어쓰며 푸욱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다. 그 깊은 한숨 소리에 역구는 그만 잠을 뺏기고 만 것이다. 자기 때문에 마을도 한번 번번히 못 나가고 (그렇게 이 역구란 놈이 악종으로 날뛰었던 겁니다.) 방 안에서만 늘 풀이 죽어 있어야만 했던 부친의 한숨 소리에 자꾸 헛기침만 해 대던 역구였다.

그 밤, 부친은 죽창에 찔려 죽고, 어쩌다 자긴 이렇게 여기 살아 있다고 역구는 또 고개 오르기를 멈추며 조용히 한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Tip 역순행적 구성

'역구는 또 고개 오르기를 멈추며'를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의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시간적 흐름이 **'현재-과거-현재'로 장면이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역순행적 구성'이라 한다.** 수험생은 이러한 장면의 전환과 단순 과거 회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시간 역행으로 인한 장면 전환은 인물의 행동과 발화를 통해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단순 과거 회상은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개를 오르고 있는 현재와는 한참 떨어진 시간에 있는 역구의 과거를 '**조금 전 소변보러 밖에 나갔던 부친**'이라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부자만 몰랐지, 동네에서들은 모두 국군이 머지않아 돌아온다는 걸 알고들 있었던 거죠. 결국 자기들 손으로 우리 부자 처치해 버리자는 생각들이었겠죠. 역구란 놈이 그렇게 죽어 마땅한 놈이었습네다."

그들이 고개 오르기를 잠시 쉬는 동안도 산속의 소나무 위에 앉았던 눈은 제 무게가 겨운지 싹싹 쏟아져 내리곤 했다.

"그날 밤, 난 집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치뒀으며 아버님의 비명을 들었수다. 득수 동생 놈이, 잡았다! 하고 소릴 치더군요. 잡았다, 하고 말입네다. 그래두 이놈은 살겠다고 정갱이까지 빠져드는 눈길을 맨발로 달아나구 있었죠."

그는 카악 가래침을 돋워 입안에 꿀럭거리며,

"그러니까 그때 와야릴 떠나군 이번이 처음 가는 겁네다. 십 년이 넘는 오늘에야 아버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비록 무덤이지만....."

그는 카악 가래침을 뱉어 버리고 다시 고개를 허우적허우적 오르기 시작했다.

Tip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처럼, 맥락상 침을 뱉는 행위는 **사회와의 부조화, 내면의 고통 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큰 키의 사내는 이제 눈길을 걷기에 지칠 대로 지친 듯 헉헉 숨을 몰아쉬곤 했다. 그러나 억구의 얘기에 흠뻑 끌리고 있는 투였다.
드디어 우중충 흐렸던 하늘이 눈을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 버리며, 그리고 순화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리고 못 견딜 추억 같은 걸 뿌리면서 눈이 내렸다. 바람결에 눈발이 비끼고 있었다. 송림이 웅웅 적막한 음향을 냈다.

[tip] 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며, 그리고 순화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진' 존재다. 다시 말해서 가래를 뱉는 행위 등으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억구의 죄의식과 세상에 대한 억울함 등을 덮는 존재라 볼 수 있는 것이며 곧 눈에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전상국, 「동행」-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시점상에서는 동이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전쟁이 남긴 갈등과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그려 낸 소설이다. 살인범 억구와 형사가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겨울밤 눈 덮인 산길을 동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펼쳐지며 사건이 전개된다. 추리 소설적 기법을 통해 서사 전개 과정에서 긴장감을 주고 있으며, 대립적인 인물의 설정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통과 갈등을 겪는 인물의 모습과 이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인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제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그에 대한 연민
'수능특강' <보기>	
	「동행」은 두 사내가 눈이 내리는 산길을 걸어가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구름치 고개를 오르고, 내려가는 장면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긴장의 고조 및 해소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 작품의 주된 소재인 '눈'은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여러 소재들도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두 남자 사이에 무엇인가를 감추는 듯한 대화나 행동을 통해 관계를 추측하게 하는 추리 소설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증폭시켜 작중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기> point	<p>(1) 공간 이동에 따라 긴장의 고조 및 해소가 맞물려 진행 (2) '눈'은 갈등을 해소 (3) 감추는 듯한 대화나 행동을 추측하게 하는 추리 소설적 기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tip] 담배를 쥐어주며 자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간접적으로만 했을 뿐, 억구가 실제로 자살을 했는지, 또한 최종적으로 체포가 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최억구의 이름이 밝혀진 뒤에도 형사인 '큰 키 사내'의 이름은 끝까지 함구 되는 등 이는 추리 소설적 기법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전략이라 볼 수 있다.</p> </div>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인 선지	<p>④ "노 — 형, 잠깐", "아니 선생, 남을 불러 놓군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아, 노형, 잠깐"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그동안 암시적으로 제시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군. ⇒ 큰 키의 사내가 억구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고, 이후 큰 키의 사내는 억구에게 담배를 주는 행위로 자신의 고민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다고 볼 수는 없다.</p>

「대립적인 인물 설정의 효과」(in 사용설명서)

- 이 작품은 '큰 키의 사내'와 '역구'라는 대조적인 두 인물을 같은 길 위에 놓음으로써 사건 전개에 긴장감을 극대화 하고 있고, '큰 키의 사내'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살인자인 역구를 놓아 주는 모습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 내고 있다.

큰 키의 사내	동행	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양: 키가 크고, 방한에 빈틈없이 준비된 옷차림을 하였으며, 걸음걸이가 정확함. 성격: 조심성이 있고 내성적임. 입장: 쫓는 자 과거: 도덕적 규범에 얽매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못함.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양: 키가 작고, 추위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차림새, 걸음걸이가 허전함. 성격: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성과 잔인성을 지님. 입장: 쫓기는자. 과거: 도덕적 규범에 얽매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못함.

「더 알아보기」(in 사용설명서)

- 여로형 소설의 특징**
이 작품은 '길 떠남-도착'이라는 여행길의 순서와 맞물려 전개되는 여로형 소설이다. 여로형 소설에서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길'은 작품의 중심 배경이 되고, 인물이나 사건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또한 '길'을 통한 공간의 변화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의 변화나 내적 성숙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길'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하여 오르막길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길의 정점을 중심으로 내리막길은 고조되던 갈등이 해소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전개되기도 한다.

[참고하기] EBS 'Q & A'

Q.	이 작품에서 '담'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A.	'담'의 사전적 의미는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올린 것'입니다. '담'을 넘는다는 것은 남의 집을 허락 받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이므로 사회적·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큰 키의 사내가 어린 시절 '담'을 넘고자 했던 이유는 '담' 너머에 갇혀 있는 새끼 토끼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담'을 넘는 행위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또는 생명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을 넘지 않은 행위는 규범을 지키기는 했지만, 결국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를 포기한 선택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BS 수록] 그날 밤 난 생물 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두 낮은 담이었어. 난 거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야. 나는 담만 돌며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 선생넌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 나서 변소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지레 경계를.....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 나쁜 짓이라고.....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 토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지.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이동과 회상(回想)> / 평가원 - '2015학년도 9월 A 김승욱, 「무진기행」"

(가)

버스의 덜컹덜컹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컹덜컹거림이 더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경충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리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갓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 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갓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갓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쓰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님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 총회에서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 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었다.

- 김승욱, 「무진 기행」 -

(나)

S#4. 윤기준의 방 안 (저녁) (현재)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기준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기준,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기준의 상반신.

윤기준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 내 @*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 성모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꼭 쉬시다 오시면 대회생제약주식회사의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S#5. 같은 방 창밖 풍경 (저녁) (현재)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풍경.

(중략)

S#11. 시골 자동차길 (낮) (현재)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S#12. 버스 안 (낮) (현재)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휙휙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 김승옥, 「안개」* -

* 인서트(Insert) : 삽입된 장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신문이나 편지, 사진 등이 끼이는 것.

* 로우브 : 길고 품이 넓은 겉옷. 여기서는 목욕 가운.

* ㉠ : 효과음(Effact).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 「안개」: 「무진기행」을 각색한 시나리오임.

문제 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① ㉠ : '나'에게 긴장을 풀고 공상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다. ② ㉡ : 엉뚱한 공상을 하던 '나'에 대해 자조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③ ㉢ : '나'의 무진행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한다. ④ ㉣ : '나'에게 기대하는 '아내'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⑤ ㉤ : '아내'의 말을 긍정하며 그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정답 해설	⑤ '진심에서 나온 권유'라는 구절은 해석하기에 따라 아내의 말에 대한 '나'의 긍정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뒤이어 나오는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이라는 구절을 보면 '나'는 아내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턱으로 버스의 덜컹거림을 느끼고 있을 만큼 몸에 힘을 빼고 있는데, 그 이유는 ㉠ 바로 뒤에 나오듯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이고, 이후 '나'는 '바람'을 매개로 수면제에 대한 공상을 하고 있다. ② '쓴웃음'은 무진에 오면 늘 엉뚱하고 뒤죽박죽한 공상을 하는 자신을 향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비웃음(자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아내의 말을 종합해보면 '나'의 무진행은 '나'의 '안색이 나빠진 것과 아내가 장인과 함께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 계획을 실행할 '주주총회'가 계기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아내는 아버지와 함께 주주총회를 통해 남편인 '나'를 '전무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전무님'은 아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2	(나)는 (가)를 각색한 시나리오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① (가)에서는 서사 진행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회상의 방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에서는 '아내'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비유적 표현으로 서술한 데 비해, (나)에서는 대사로 처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아내'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아내'의 말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p>④ (가)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서술하여 제시하는 데 비해, (나)에서는 '윤기준의 방 안', '시골 자동차길', '버스 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p> <p>⑤ (가)는 버스의 덜컹거림이 주는 느낌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 주는 데 비해, (나)는 그 느낌을 버스가 자갈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전달하고 있다.</p>
<p>정답 해설</p>	<p>① (가)에는 주인공이 무진을 향하는 현재의 시간에서 자신을 무진으로 내려가게 한 아내와의 과거 대화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역행하는 서사 전개가 나타나는 반면, (나)에는 아내와 서울에서의 대화가 먼저 제시되고 무진을 향해가는 장면이 뒤이어 나오는, 시간의 순서에 따르는 서사 진행이 나타나 있다.</p>
<p>오답 풀이</p>	<p>② (가)에서 '나'는 무진에 다녀오라는 아내의 말에 대한 반응을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서술한데 비해, (나)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이라는 윤기준의 대사로 처리하여 전달하고 있다.</p> <p>③ (가)에서 아내의 말은 세 번째 문단 첫 머리에 직접 인용을 통해 서술되어 있고, (나)에서는 시나리오 기호 ㉔를 통해서 아내의 말을 효과음(Effect)으로 처리하여 나타내고 있다.</p> <p>④ (가)는 기본적으로 장르가 소설이므로 현재의 '무진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과거의 '서울'로의 공간 변화가 '서술'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지만, 시나리오인 (나)는 장면(S#-)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p> <p>⑤ (가)에서 버스의 덜컹거림은 '나'의 턱이 느끼는 감각을 통해 서술자의 서술로 표현되어 있고, (나)는 S#11에서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는 버스의 모습을 장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전달하고 있다.</p>

현대시 [21~23번 지문] [김수영, '사령']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항해도 저 돌벽 아래 집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전과함도 이 과외함도”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88), 사용 설명서(p84)

[작품, 읽기 전] “지문 이해를 조금 돕는 정호로 개편함.”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in 사용설명서)	
<p>• 이 시는 4·19 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5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당시는 자유당 독재가 절정에 이르러 민주주의는 책속에나 나오는 말일 뿐, 실질적인 국민의 주권은 보장받기 어려웠다. 작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현실을 인식하였지만, 그러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서 해야 할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자괴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p>	
[시의 제목, '사령'의 의미] EBS 'Q & A'	
Q.	이 시의 제목 '사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A.	'사령'은 '죽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백적 자문은 자신을 살아 있는 영혼으로 생각해 왔던 화자가 어느 순간 자신이 '사령'과 같은 상태임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령'이라는 제목은 화자가 자신의 삶이 진정한 행동과는 거리가 먼, 살아 있는 영혼과는 거리가 먼 '사령'의 상태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가가 분명히 '전벽'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EBS '활자'라는 말에 주목해 보자. 활자가 자유를 말한다는 말은 자유가 글로 적혀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자유는 책임이나 인쇄물을 통한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1연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성찰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tip]

- ① 화자는 '말을 듣고 있는' 스스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1연에서 '자유를 말하는 활자'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연에서 화자가 듣고 있는 말은 1연의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 활자의 말'인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스스로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 ②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모습은 화자가 자유를 말하는 그대의 말을 실천하지 못하고 관념 속에만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2연 : 자유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 3연 : 자유를 잃어버린 삶에 대한 불만족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 4연 :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자괴감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tip]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화자의 고백적 자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물음의 형식을 사용한 것은 화자가 이제껏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해왔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사령'과 같다고 느낌으로써 스스로를 재인식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연 : 죽어 있는 영혼에 대한 자괴감

- 김수영, 「사령(死靈)」-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죽어 있다고 토로하며, 무기력한 자신을 성찰하는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유가 활자로만 존재한다는 표현을 통해 자유가 억압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유를 말하는 것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며 자괴감을 느낀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알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주제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자괴감										
'수능특강' <보기>											
「사령」의 화자는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자각 없이 편안히 살아가기만 하려는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고 있다. 자유의 숭고한 이념을 관념 속에만 머물게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혼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날카로운 반성은 자유의 실현을 가져오는 힘이 된다. 비록 그 힘이 곧바로 자유의 실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가 제한된 시대에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안일한 태도를 준엄하게 추궁하는 의식이 실천의 근본이 될 수 있다.											
<보기> point	(1) 일상[자유와 책임에 대한 자각 "X"] → '자유와 책임'을 좇아야 한다. (2) 날카로운 반성 , 안일한 태도를 추궁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인 선지	㉟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 언젠가는 자유의 실현을 이루겠다는 화자의 실천 의지를 느낄 수 있군. ⇒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는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 및 그러한 삶이 앞으로도 지속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in 사용설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시는 3,4연에서 보조사 '도'를 활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면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체적인 사물</th> <td style="text-align: center;">⇒</td>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추상적인 관념</th> <td style="text-align: center;">⇒</td>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체적인 사물</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황혼, 잡초 페인트 빛</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요함, 정의, 섬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어제, 오늘, 내일</td> </tr> </table>	구체적인 사물	⇒	추상적인 관념	⇒	구체적인 사물	황혼, 잡초 페인트 빛		고요함, 정의, 섬세		어제, 오늘, 내일	
구체적인 사물	⇒	추상적인 관념	⇒	구체적인 사물							
황혼, 잡초 페인트 빛		고요함, 정의, 섬세		어제, 오늘, 내일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평가원, '2008학년도 수능, 김수영 「사령」 外"

<p>(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냐</p>

㉠ 간—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옥된 교외에서는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름소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⑥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문제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정답 해설	⑤ (가)의 화자는 도시 속에서 방향성을 잃고 삶의 비애에 잠겨 있다. 낯설은 거리와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고뇌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화자가 고뇌에 차 있음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나)의 화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고개 숙이고 들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고요한 현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행동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는 공명의 길과 강호에서 자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 갈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의 고뇌는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시도나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 또한 행동해야 함을 잘 알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기에 도피하고 싶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가)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나 화자의 인식도 엿볼 수 없다. (다)에서 화자는 마지막 수까지 자신의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p>③ (나)에서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잘 드러나 있지만, 화자는 이에 대해 대결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내면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침묵만 하고 있기에 자신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냐며 반성하는 것이다.</p> <p>④ (나)에서 화자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으나 지난 십 년을 허둥대며 보낸 것 같아 이러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p>
문제 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p>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p>
문제 선지	<p>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p> <p>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p> <p>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p> <p>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p> <p>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p>
정답 해설	<p>② <보기>의 정보에 의하면 작가가 서강에서 심신의 안정을 누린 후에 (나)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가는 심신의 안정을 찾았지만 생활에 대한 긍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가 작품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하는데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p>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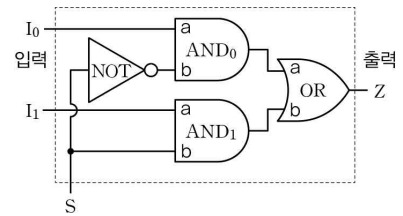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기술[37~42번][논리 회로를 이용한 컴퓨터의 정보 저장 방법]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는 정보 처리 장치이다. 컴퓨터에서 정보는 0 또는 1의 나열로 표현되고,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논리 연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논리 연산이란 0 또는 1만을 피연산자로 사용하는 연산으로, 부정(~), 논리합(∨), 논리곱(∧) 등이 있다. 가령 X 의 부정인 $\sim X$ 는 X 가 1이면 0이고 X 가 0이면 1이다. X 와 Y 의 논리합 $X \vee Y$ 는 X 와 Y 중 하나라도 1이면 1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이다. X 와 Y 의 논리곱 $X \wedge Y$ 는 X 와 Y 모두 1일 때에만 1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이다.

게이트는 이러한 논리 연산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논리 연산이 부정인 경우에는 NOT 게이트, 논리합인 경우에는 OR 게이트, 논리곱인 경우에는 AND 게이트로 구현된다. NOT 게이트, OR 게이트, AND 게이트는 <그림 1>과 같은 논리 회로 그림에서 각각 , , 로 표현되며, 피연산자들을 입력 단자로부터 입력받아 그 연산 결과를 출력 단자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게이트의 입력값과 출력값은 각각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의 전압으로 구현되는데, 통상 0의 값은 0V에서 2V 사이의 낮은 전압으로, 1의 값은 3V에서 5V 사이의 높은 전압으로 구현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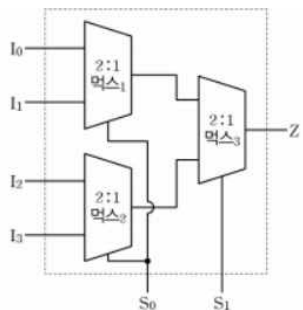
게이트들을 조합하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다. <그림 1>은 두 개의 입력 단자 I_0 과 I_1 로 들어오는 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단자 Z 로 내보내는 논리 회로이다. 입력값이 복수이고 출력값이 하나인 논리 회로를 맥스라고 하는데, 그중 <그림 1>처럼 제어 신호 S 를 제외한 입력값이 둘일 때를 2 : 1 맥스라고 한다. I_0 과 I_1 중 어느 것이 출력되는지는 S 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S 의 값을 0으로 입력한 경우, AND_0 의 a 와 b 에는 각각 I_0 과 1이,

S	Z
0	I_0
1	I_1

<표>

AND_1 의 a 와 b 에는 각각 I_1 과 0이 입력된다. 그러므로 AND_0 은 항상 I_0 의 값을 출력하고 AND_1 은 항상 0을 출력한다. 그러면 OR 게이트는 I_0 과 0을 입력받아 I_0 의 값을 출력한다. 반면 S 의 값을 1로 입력한 경우에는 위와 반대로 I_1 의 값이 출력된다. 이 논리 회로는 $Z = (I_0 \wedge (\sim S)) \vee (I_1 \wedge S)$ 라는 논리 연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능은 <표>와 같은 입출력 관계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논리 회로의 기능과 그것의 구현 방식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 <표>와 동일한 입출력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림 1>과는 다른 구현 방식을 가진 논리 회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력값과 출력값만 고려하는 외부적 관점에서는 그 회로도 <그림 1>과 동일한 논리 회로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림 1>처럼 <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논리 회로들을 조합하면,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논리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입력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4 : 1 맥스는 <그림 2>처럼 세 개의 2 : 1 맥스를 조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이 논리 회로는 두 자리 제어 신호 S_0, S_1 이 00이면 I_0 을, 01이면 I_2 를, 10이면 I_1 을, 11이면 I_3 을 출력하게 된다.



<그림 2>

그리고 이러한 4 : 1 맥스는 다시 더 복잡한 회로를 구성하는 논리 회로로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복잡한 연산을 매우 빠른 속도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 회로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것이다.

* 피연산자: 연산의 대상이 되는 수.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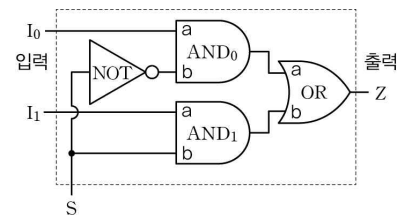
컴퓨터는 정보 처리 장치이다. 컴퓨터에서 정보는 0 또는 1의 나열로 표현되고, 이러한 정보의 처리는 논리 연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논리 연산이란 0 또는 1만을 피연산자*로 사용하는 연산(C)으로, 부정(~), 논리합(\vee), 논리곱(\wedge) 등이 있다. 가령 X 의 부정인 $\sim X$ 는 X 가 1이면 0이고 X 가 0이면 1이다. X 와 Y 의 논리합 $X \vee Y$ 는 X 와 Y 중 하나라도 1이면 1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이다. X 와 Y 의 논리곱 $X \wedge Y$ 는 X 와 Y 모두 1일 때에만 1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첫 문단에 제시된 정보가 꽤 많습니다. 첫 문단인만큼,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 ② 컴퓨터에서 '정보'는 0,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논리 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처리된다고 하는군요.
- ③ 0, 1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논리 연산'의 예시로 3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 1. 부정 : '0→1 / 1→0'의 결과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반대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2. 논리합 : '1+0=1 / 0+1=1 / 0+0=0 / 1+1=1' X 와 Y 중 하나라도 1이면 논리합의 결과는 1이 됩니다.
 - 3. 논리곱 : '1X1=1' 나머지 경우는 모두 '0'이 됩니다. 즉 0이 하나라도 있으면 논리곱의 결과는 0이 됩니다.

-----1문단

게이트는 이러한 논리 연산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장치(C)로, 논리 연산이 부정인 경우에는 NOT 게이트, 논리합인 경우에는 OR 게이트, 논리곱인 경우에는 AND 게이트로 구현된다. NOT 게이트, OR 게이트, AND 게이트는 <그림 1>과 같은 논리 회로 그림에서 각각 , , 로 표현되며, 피연산자들을 입력 단자로부터 입력받아 그 연산 결과를 출력 단자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게이트의 입력값과 출력값은 각각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의 전압으로 구현되는데, 통상 0의 값은 0V에서 2V 사이의 낮은 전압으로, 1의 값은 3V에서 5V 사이의 높은 전압으로 구현된다.



<그림 1>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위에서 본 세 가지의 논리 연산들이 장치에 들어가면 '게이트'가 됩니다. 다시 말해 '게이트'는 각각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부정=NOT 게이트 / 논리합=OR 게이트 / 논리곱=AND 게이트
- ② 게이트의 입력값과 출력값은 출력 단자의 전압으로 구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값으로 0을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 단자에 전압 0V를, 1을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 단자에 전압 3V를 가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값'이 '전압'으로 치환 가능해졌으니, 이후 지문이나 문제에서 '전압'이 나왔을 때 '값'으로, '값'이 나왔을 때 '전압'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지문에서 친절하게 <그림>을 주었으니, 그냥 넘어가기보다 한 번 수치를 대입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니까요. 맨 앞에 있는 NOT 게이트에 3V의 전압을 가해서 1의 입력값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AND₀의 b에는 0의 입력값이 입력될 것입니다. NOT 게이트는 반대로 바꿔주는 '부정'의 논리 연산을 구현하는 게이트이기 때문입니다.

-----2문단

게이트들을 조합하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다. <그림 1>은 두 개의 입력 단자 I_0 과 I_1 로 들어오는 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 단자 Z 로 내보내는 논리 회로이다. 입력값이 복수이고 출력값이 하나인 논

리 회로를 맥스(C)라고 하는데, 그중 <그림 1>처럼 제어 신호 S 를 제외한 입력값이 둘일 때를 2:1 맥스(C)라고 한다. I_0 과 I_1 중 어느 것이 출력되는지는 S 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S 의 값을 0으로 입력한 경우, AND_0 의 a 와 b 에는 각각 I_0 과 1이, AND_1 의 a 와 b 에는 각각 I_1 과 0이 입력된다. 그러므로 AND_0 은 항상 I_0 의 값을 출력하고 AND_1 은 항상 0을 출력한다. 그러면 OR 게이트는 I_0 과 0을 입력받아 I_0 의 값을 출력한다. 반면 S 의 값을 1로 입력한 경우에는 위와 반대로 I_1 의 값이 출력된다. 이 논리 회로는 $Z=(I_0 \wedge (\sim S)) \vee (I_1 \wedge S)$ 라는 논리 연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능은 <표>와 같은 입출력 관계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S	Z
0	I_0
1	I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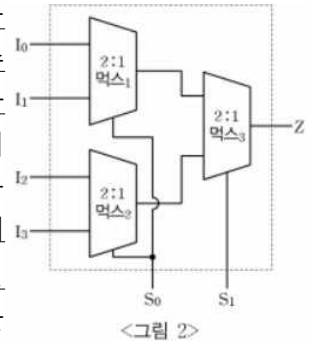
<표>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그림 1>처럼 입력값이 복수이고 출력값이 하나인 논리 회로를 ‘맥스’라고 합니다. ‘맥스’의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S , 즉 제어 신호의 존재입니다. 제어 신호에 따라 출력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② 입력값에서 출력값까지 가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2문단에서 <그림>을 봤으니 <그림>에서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이해해도 괜찮지만, 어차피 지문에서 ‘상황, 조건(입력값)’과 ‘결과(출력값)’를 주었으니 이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연산 과정을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다시 와서 대입해 봐도 늦지 않습니다.
- ③ 친절하게 S 와 출력값 사이의 관계를 <표>로 정리해주기까지 하였네요. 굳이 <표>로 정리해서 제시해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쓰인다는 뜻입니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④ ‘2:1 맥스에서 S 값이 0이면 두 개의 입력값 중 위의 입력값이, S 값이 1이면 두 개의 입력값 중 아래의 입력값이 출력값으로 출력된다’ 정도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군요.

-----3문단

논리 회로의 기능과 그것의 구현 방식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 <표>와 동일한 입출력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림 1>과는 다른 구현 방식을 가진 논리 회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입력값과 출력값만 고려하는 외부적 관점에서는 그 회로도 <그림 1>과 동일한 논리 회로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림 1>처럼 <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논리 회로들을 조합하면,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논리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입력값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4:1 맥스(C)는 <그림 2>처럼 세 개의 2:1 맥스를 조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이 논리 회로는 두 자리 제어 신호 S_0, S_1 이 00이면 I_0 을, 01이면 I_2 를, 10이면 I_1 을, 11이면 I_3 을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 2>

4:1 맥스는 다시 더 복잡한 회로를 구성하는 논리 회로로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복잡한 연산을 매우 빠른 속도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 회로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표>와 동일한 입출력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림 1>과 구현 방식이 다른 논리 회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외부적 관점에서는 그 회로도 <그림 1>과 동일한 논리 회로로 간주한다. 다르게 말하면, 입력값과 S 값, 출력값 사이의 관계가 같으면, 그 회로가 가지고 있는 구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논리 회로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 ② 이후에 다른 구현 방식을 가지지만 입력값, S 값, 출력값이 같은 논리 회로를 제시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의 정보는 문제에서 사용되는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 ③ 2-3 문단에서 ‘2:1 맥스’를 제시해 주었고, 4문단에서는 ‘4:1 맥스’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4:1 맥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S 값과 하나의 출력값 사이에 관계를 보기 쉽게 정리해 주었으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S_0, S_1=0,0 \rightarrow \text{출력값}=I_0 / S_0, S_1=0,1 \rightarrow \text{출력값}=I_2 / S_0, S_1=1,0 \rightarrow \text{출력값}=I_1 / S_0, S_1=1,1 \rightarrow \text{출력값}=I_3$$

-----4문단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를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